

부모진로지지가 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의 이중매개효과*

The Effect of Parental Career Support on Occupational Engagement: The Serial Mediating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Adaptability

1차원고접수: 2024.04.09. 수정원고접수: 2024.06.01. 최종게재결정: 2024.06.23.

소연희¹

¹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So, Yeon-Hee¹

¹Dept.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국문초록 이 연구는 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의 증진을 위한 진로지도의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부모 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의 이중매개 효과를 분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경상남도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Process macro 모델 4와 6을 사용하여 매개모형 검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첫째, 모델 4 분석을 통해서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모델 6 분석을 통해서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적 이중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이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전공만족도가 진로적응성 보다도 매개효과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진로관여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지지, 전공만족도 및 진로적응성을 기반으로 한 진로지도 방안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해야 함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부모진로지지, 진로관여행동,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erial mediating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adapt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areer support and occupational engagement among 240 college students. This research employs questionnaire data and serial mediation model analyses via SPSS Macro models 4 and 6 to explore the potential pathways through which parental career support may influence students' occupational engagement. The findings reveal that both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adaptability serve as significant partial mediators individually (Model 4) and in tandem (Model 6)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areer support and occupational engagement. Furthermore, bootstrapping analysis highlights the indirect effects, showcasing the greater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when compared to career adaptability.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parental career support,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adaptability into career education and guidance programs to enhance college students' occupational engagement.

Keywords parental career support, occupational engagement, major satisfaction, career adaptability, undergraduat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2030년까지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직업분야의 약 13%가 지능형

AI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보도되었다(한국경제 2024.3.13). 한편, 경향신문(2023.4.30)에서는 초·중·고등 학생부터 대학생 이상의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쳐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진로 및 취업 상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 이 연구결과물은 2023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Corresponding to 소연희 (So, Yeon-Hee)

경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Dept. of Education, Kyungnam University) E-mail. yukgam91@kyungnam.ac.kr

Copyright ©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보도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위해, 진로관련 프로젝트를 학점으로 인정하고, 대학교수와 여러 직업 분야의 현장전문가, 진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진로지도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대학생과 성인들이 진로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진로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며, 좁은 의미로는 선택한 직업 분야와 관련된 행동적, 심리적, 인지적의 총체적 활동이다(O'Brien & Fassinger, 1993). 한 개인의 삶은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적성, 능력 및 가치관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파악하고 진로를 결정한 후에 진로준비를 통합적이며 체계적으로 해야만 한다. 특히,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에서 성인 초기 단계로 자신의 내·외적 요인과 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진로를 선택하고, 여러 경험을 토대로 진로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이다(Super, 1990). 따라서 부모와 대학에서는 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방향을 설정하며,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계획하고, 진로목표 도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통합 활동인 ‘진로관여행동’을 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진로관여행동(occupational engagement)이란 개인이 다양한 직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면서, 동시에 관심 있는 진로 영역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계획 및 실천하는 진로행동이다. 이는 진로준비행동이 진로를 결정한 후에 준비하는 활동인 반면, 진로관여행동은 진로탐색과 진로준비 및 실행을 동시에 하는 통합적인 진로활동 과정이다(Krieshok, Black, & McKay, 2009). 특히 조선일보(2020.10.19.) 보도에 의하면,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지만, ‘진로를 확실하게 결정하였다’는 비율이 응답자의 약 4.7%로 매우 낮았다. 이는 사회진출이 얼마 남지 않은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진로탐색과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진로관여행동 변인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진로관여행동은 탐색과 강화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탐색이란 개인이 자신의 흥미 및 관심을 고려해 진

로결정을 할 때까지의 진로에 대한 경험 및 정보수집 활동이다. 강화란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적지만, 사회적 변화와 특성에 대한 높은 민감성을 가지고, 정보를 획득하고, 진로를 결정 및 준비하는 활동이다(Cox, Krieshok, Bjornsen, & Zumbo, 2015).

진로관여행동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장우정, 2023; 조혜리, 박진우, 홍아정, 2022; Krieshok et al., 2009)에서는 진로관여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맥락적 요인들이 상호작용을 하여 형성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내·외적 영향 변인들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인지적 진로 자기관련모형(social cognitive career self management model)에 의하면 진로관여행동을 촉진하는 외적 변인에는 부모, 교사, 친구 등의 지지가 있으며, 이 중에서도 부모진로지지의 관련성이 크다고 하였다(Lent, Ezeofor, Morrison, Penn, & Ireland, 2016).

우리나라는 서양에 비해 자녀의 연령이 증가해도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되지 않고, 출산율 저하, 핵가족화 등의 사회적 변화는 자녀의 진로결정 등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 강화를 더욱더 가속화 시켰다(김경애 등, 2018; 유계숙, 기나휘, 양다연, 2018; 정철영, 이영광, 2020). 김혜경(2021)은 자녀의 대학 생활 및 진로 등 삶의 전반에 대한 부모지지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였다. 특히 그녀는 부모의 통제적인 개입이나 간섭보다는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자녀의 적성과 흥미 및 관심 등을 반영하여 진로에 대한 조언과 충고 등을 자녀에게 한다면 진로탐색, 결정 및 준비활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로관여행동에 대한 부모의 진로지지는 중요한 영향 변인이라고 하였다. 전미리(2020)도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따라 진로를 다양하고 폭넓은 관점에서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진로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진로관여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부모의 진로지지란 자녀가 독립적으로 진로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충고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부모 진로지지는 스스로 진로의사결정을 하도록 자녀를 격려하고, 독립적이고 자발적인 행동을 수용하는 부모의 태도를 일컫는다(김혜경, 2021; 전미리, 2020; 이상희, 2009).

급격한 사회적 변화와 직업분야의 다양성으로 인해, 2015년을 기준으로 부모의 진로지지와 자녀의 진로행동과의 관련된 선행 연구들의 비율이 높아졌다(이영광, 양인준, 이승엽, 2019). 또한 과거에는 부모진로지지 연구들이 정서적 진로지지에 국한되었지만, 최근에는 정서적 진로지지 외에 경제적 진로지지, 대화적 진로지지, 경험적 진로지지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부모진로지와 진로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들이 증가되었다(김혜경, 2021; 이보영, 백지숙, 2019). 각 요인별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정보적 진로지지는 자녀가 적성 및 흥미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진로선택을 하도록 부모가 제공해 주는 진로 정보와 전망에 대한 조언이다. 대화적 진로지지만 자녀가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갈등이 있을 경우 자율적이며, 허용적인 분위기를 기반으로 부모와 의논하여 문제나 갈등을 해소하는 지지이다. 정서적 진로지지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자녀의 진로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지지이다. 경험적 진로지지만 자녀가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려는 진로 및 직업분야에 대한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거나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경제적 진로지지만 어학연수, 국내외 진로체험 등 자녀가 진로준비를 위해 경험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경제적 도움을 주는 지지이다(이상희, 2009).

임점섭과 김장희(2019)는 부모진로지지가 높을수록 대학 생활 적응을 잘하였고, 자녀의 진로탐색, 결정 및 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또한 대학생 대상 선행 연구들(김하라, 이항심, 2019; Barnes, Bimrose, Brown, Gough, & Wright, 2020)에서도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관련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다. 특히 전미리(2020)는 부모진로지지는 대학생이 적극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제까지 선행 연구들이 부모진로지와 단편적인 자녀의 진로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

는데 국한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며 준비해 가는 통합적인 진로 활동에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녀가 사회적 변화와 자신의 적성 및 흥미를 고려하여 진로를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진로정보를 수집하여 합리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진로통합 활동인 진로관여행동에 대한 부모진로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부 선행 연구들(김혜경 2021, 임점섭, 김장희, 2019)에서는 대학생은 입학 전에 부모의 진로에 대한 조언을 고려하여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는 비율이 약 65% 이상이라고 하였다. 특히 이들은 진로관여행동 증진을 위해서는 전공만족도가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선행 연구들(강애령, 김현민, 조성균, 2020; 이자형, 2021)에서는 부모진로지지는 자녀의 전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대학에서의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진로경험을 통한 탐색과 정보 수집 및 적극적으로 준비행동을 하려는 의지가 높았다.

전공만족도란 대학생이 관심이 있거나 결정한 진로 분야와 재학 중인 학과(부) 전공과 비교해서 판단하고 지각한 산출물이다(방희원, 조규판, 2020). 전공 교과목 수업이나 내용이 학생 자신의 진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지각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높았으며, 자신이 선택한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경험하려는 데 적극적인 태도 및 행동을 나타내기도 하였다(송윤정, 조규판, 2015). 강애령 등(2020)도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하였고, 이는 진로와 관련된 행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김혜경(2021)도 부모진로지지는 전공만족도와 관련이 있으며, 또한 전공만족도는 진로관여행동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고 하였다.

한편, 진로관여행동과 관련 변인으로 개인이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진로결정 및 준비를 유연하게 실천하는 진로적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 연구들도 있었다(김나래, 김지근, 2022; 유기은, 이기학, 2015). 진로적응성은 Super(1990)가 제안한 생애주기 및 생애 공간

이론에 포함된 개념으로 진로성숙으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진로성숙이 청소년에게는 적합하지만 여러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성인초기의 진로발달 단계에 있는 대학생들에게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진로 적응성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Chan, et al., 2015) 진로 적응성이란 심리적 변인으로 직업과 관련된 활동들을 준비하고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 변화에 맞추어 자신의 진로결정과 준비행동을 유연하게 수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처 및 실천하는 능력이다(김수영, 배성아, 2014; Savickas, 1997). 유기은과 이기학(2015)은 진로적응성은 진로관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적응성은 부모진로지지와 같은 부모 변인에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하였다. 특히 진로적응성은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는데 필요하며, 이는 관심, 통제, 호기심으로 구성되었다(김민선, 고은영, 2020)은 관심이란 미래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진로관련 활동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자각이다. 통제는 개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회 및 진로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를 수정 및 대처하는 태도이다. 호기심은 자신의 강점과 단점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진로와 관련된 새롭고 혁신적인 활동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는 것이다. 자신감은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렵거나 예측하는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성향이다. 대학생 대상 진로적응성 선행 연구들(박현미, 유나현, 2020; 서인희, 임정선, 2019)에서는 진로적응성은 자신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도 높았고, 이는 실제 진로탐색 및 활동과도 직결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통해 진로관여행동을 예측하는데 진로적응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2. 연구문제

이제까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 연구들(이영광 등, 2019; 전미리, 2020)에서는 부모진로지지는 자녀의 진로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대학생은 성인초기이기 때문에 개인성향이나 특

성 변인도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았다고 하였다. 여러 선행 연구들(김나래, 김지근, 2022; 임점섭, 김장희, 2019; Barnes et al., 2020)에서는 대학생의 개인특성변인들 중 진로와 관련성이 높은 변인으로는 전공만족도(김혜경, 2021)와, 예측하지 못한 진로상황에서도 적극적이며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인 진로적응성(김나래, 김지근, 2022)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는 부모진로지지와 진로행동의 관계에서 개인 특성변인의 단편적인 매개효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이 상호 어떤 관련성을 통해 진로관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을 각각 매개한다는 선행 연구들(강애령 등, 2020; 유기은, 이기학, 2015)을 토대로 하여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관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의 이중 매개를 통해 진로관여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모형을 설정한 후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이 검증을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들은 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을 강화시키기 위한 효율적 진로지도 및 상담과 진로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의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부모의 진로지지,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 및 진로관여행동과의 상호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부모의 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의 단순매개효과와 이중매개효과는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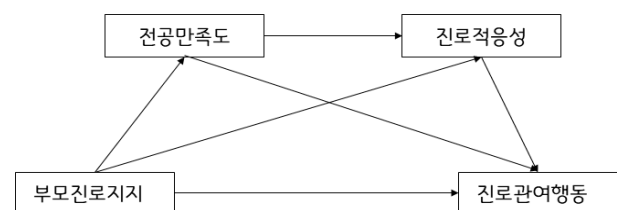


그림 1. 가설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편의 표집을 통해, 경상남도 소재 4년제 K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학생들 중 동일한 번호에 기입을 한 10명을 제외하고 24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또한 G-POWER 3.1 프로그램(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사용하여 적절한 표집 수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119명 이상이면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최종분석에 240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 중 남학생은 101명(42.00%), 여학생은 139명(58.00%)이었다.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은 50명(20.83%), 2학년은 101명(42.08%), 3학년은 66명(27.50%), 4학년은 23명(9.59%)이었다. 계열별로는 사회과학은 145명(60.42%), 인문계는 55명(22.91%), 이 공계는 40명(16.67%)이었다.

2. 측정도구

1) 부모진로지지

부모진로지지 검사는 이상희(2009)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 20문항 5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즉 정보적 지지(예: 부모님은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하여 장단점과 전망을 알려주신다.) 4문항, 대화적 지지(예: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부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다.) 4문항, 정서적 지지(예: 부모님은 내가 진로 때문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신다.) 4문항, 경제적 지지(예: 우리 부모님은 내가 원하면 어학연수나 유학을 보내주실 것이다) 4문항, 경험적 지지(예: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을 보여주신 적이 있다.) 4문항이었다. 이 척도가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진로교육 및 상담관련 박사 3인과 교육학 전공 교수 4인으로 구성된 교육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아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 측정도구의 문항별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 이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부모진로지지 인식이 높다는 의미이다. 이 검사의 전체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었으며, 정보적 지지는 .75, 대화적 지지는 .78, 정서적 지지는 .72, 경제적 지지는 .76, 경험적 지지는 .79 이었다.

2)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하혜숙(1999)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설문지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고,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하위요인별 문항의 수와 예들은 다음과 같다. 교과만족은 (예: 학과(부) 교수님들은 전공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5문항, 관계만족은 (교수-학생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 3문항, 인식만족은 (졸업 후의 진로에 현재의 학과(부)가 도움이 된다.) 5문항, 일반만족 (예: 우리 학과(부)의 전공에 대한 흥미가 있다) 7문항이었다. 이 문항들이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적절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진로교육 및 상담관련 박사 3인과 교육학 전공 교수 4인으로 구성된 교육전문가들이 척도를 검토하였고 이중 문구가 적절하지 않는 문항들은 수정하였다. 이 검사의 문항별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이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는 의미를 가진다.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 교과만족 .81, 관계만족 .78, 인식만족 .75, 일반만족 .79 이었다.

3) 진로적응성

진로적응성 검사는 Maggiori, Rossier와 Savickas(2017)의 단축형 진로적응성 검사(Career Adapt-Abilities Scale-Short Form)(CAAS-SF)를 국내의 대학생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김민선과 고은영(2020)의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관심은 (예: 미래에 대해 준비한다.) 3문항, 통제는 (예: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진다.) 3문항, 호기심은 (예: 개인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 3문항 자신감은 (예: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3문항 등 4개의 요인과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검사가 대학생들에 적절한지를 진로교육 및 상담관련 박사 3인과 교육학 전공 교수 4인으로 구성된 교육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아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별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진 5점 리커트 척도 이었고,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검사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5이며, 관심은 .82, 통제는 .80, 호기심은 .85, 자신감은 .82이었다.

4) 진로관여행동

진로관여행동 검사는 Cox(2008)가 개발한 진로관여검사(Occupational Engagement Scale for Student; OES-S)를 변안하여 국내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문항들로 수정·보완하여 타당화한 정미나(201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전체 14문항, 단일 요인(예: 나는 미래의 진로 관련하여 다양한 경험을 해 본다.)으로 구성되었다. 이 측정도구가 본 연구목적에 적절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 진로교육 및 상담관련 박사 3인과 교육학 전공 교수 4인으로 구성된 교육전문가들에게 검토를 받아서 내용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이 검사의 문항에 따른 반응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관여행동이 높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9이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3년 11월 30일 까지이었고, K대학교 학습관리시스템의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설문조사는 설문참여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조사 중 ‘원하지 않으면 그만둘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또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참여 학생들에게 검사결과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여 공개되지 않음을 공지하였고, 설문지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설문조사 작성시간은 약 10분 정도 이었고, 설문지 응답율과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락처를 남길 경우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자료분석은 Window용 SPSS/PC+26.0과 SPSS PROCESS macro 4.2버전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첫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구하였고,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 상관분석을 하였다. 또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척도별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한 검증 방법들 중 Baron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방법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추론하기 때문에 정확한 다중매개효과를 도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김수영, 2016; Hayes, 2018). 또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은 전체 매개효과보다는 개별적인 간접효과만을 도출한다는 제한점이 있다(윤철호, 최광돈, 2016).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Hayes와 Preacher(2014)는 SPSS PROCESS macro를 통한 다중매개효과 분석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SPSS PROCESS macro 4.2 v를 통해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의 각각의 개별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odel 4를 사용하여 단순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의 이중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odel 6을 사용하여 직렬 다중매개 모델(serial multiple mediator model) 검증을 실시하였다. 한편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매개효과 크기와 이에 대한 유의성 검증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의 표본 수는 10,000번으로 설정하였고, 95% 신뢰구간에서 이중매개효과와 직접효과의 유의성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부트스트래핑 분석법은 자료들의 정규성을 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이 있다.

III. 연구 결과

1. 변인들의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

변인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정규 분포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왜도는 2를, 첨도는 7보다 크지 않았다. 이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정규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Kline, 2016). 변인들 간의 상호관련성이 높으면 경로 값을 신뢰하지 못하므로 다중 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VIF(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확인한 결과, 부모지지는 1.89, 전공만족도는 2.27, 진로적응성은 2.09를 나타냈으며, 이는 기준값 5보다 낮았기 때문에 다중 공선성은 없었다(Grimm & Yarnold, 2000). 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r = .51 \sim .62(p < .01)$ 의 분포를 나타냈다. 진로관여행동은 진로적응성과 가

장 높은 정적인 상관계수를 나타냈고($r = .62, p < .01$), 부모진로지지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계수($r = .57, p < .01$)를 나타냈다. 진로적응성도 전공만족도($r = .59, p < .01$)와 부모진로지지($r = .51, p < .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상관계수를 보였고, 전공만족도는 부모진로지지와 정적인 상관($r = .55, p < .01$)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매개효과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여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의 단순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모진로지지가 전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53, p < .01$). 또한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관여행동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beta = .64, p < .01$). 그러나 매개변수인 전공만족도를 포함하였을 때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였지만, 영향정도는 $\beta = .38(p < .01)$ 로 감소하였다. 이는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가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전공만족도의 총 간접효과는 .26이었고, 이는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18과 .33을 나타냈으며 이는 0을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기술통계량과 상관분석결과 (N = 240)

변인	1	2	3	4
1. 부모진로지지	-			
2. 전공만족도	.55**	-		
3. 진로적응성	.51**	.59**	-	
4. 진로관여행동	.57**	.61**	.62**	-
평균	3.85	3.84	3.85	3.56
표준편차	.34	.32	.81	1.25
왜도	-.34	-.40	-.22	-.24
첨도	.44	-.22	.49	-.31

** $p < .01$.

표 2. 단순매개효과 분석결과

매개 변인	모델	표준화 경로계수 (β)	표준오차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전공 만족도	부모진로지지→전공만족도	.53**	.05	.44	.64
	부모진로지지→진로관여행동	.64**	.04	.19	.38
	부모진로지지 → 진로관여행동	.38**	.05	.34	.52
	전공만족도	.49**	.05	.44	.62
	부모진로지지→전공만족도→진로관여행동(간접효과)	.26**	.04	.18	.33
진로 적응성	부모진로지지→진로적응성	.55**	.06	.44	.62
	부모진로지지→진로관여행동	.64**	.05	.62	.81
	부모진로지지 → 진로관여행동	.40**	.05	.35	.55
	진로적응성	.43**	.05	.39	.61
	부모진로지지→진로적응성→진로관여행동(간접효과)	.24**	.04	.16	.32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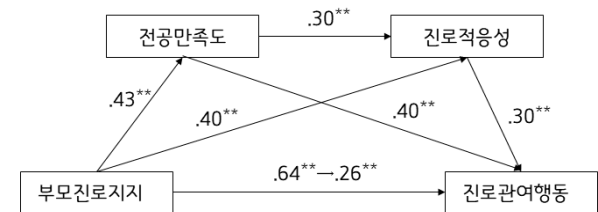
3.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SPSS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해 진로적응성의 단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모진로지지가 진로적응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55, p < .01$). 또한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관여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으나($\beta = .64, p < .01$), 매개변수인 진로적응성을 포함하였을 때는 영향정도가 $\beta = .40, p < .01$ 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공만족도와 마찬가지로,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로적응성의 간접적인 효과는 .24이었고,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한 결과, 95% 신뢰구간 내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16과 .32를 나타냈으며, 이는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4.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 이중 매개효과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과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 모델 6를 이용하여 직렬 다중매개효과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그림 2와 같다.

첫째,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관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beta = .64, p < .01$). 또한 부모진로지지는 전공만족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beta = .52, p < .01$). 둘째, 부모진로지지는 진로적응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직접 영향을 미쳤고($\beta = .40, p < .01$), 전공만족도도 진로적응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beta = .30, p < .01$). 셋째, 부모진로지지,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을 포함하였을 때는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관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그 영향정도는 감소하였다($\beta = .26, p < .01$). 모든 독립변인들이 진로관여행동을 설명하는 총 설명량은 64%이었다. 또한 경로별 간접효과는 표 4와 같다. 진로관여행동에 대한 전공만족도의 간접효과는 .21을 진로적응성의 간접효과는 .12를 나타냈으며,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의 총 간접효과는 .38이었다.



** $p < .01$.

그림 2. 최종 이중매개 모형

표 3. 다중매개효과분석결과

모델	비표준화 (B)	경로계수 (β)	표준화 (β)	표준오차 (S.E.)	t	F	R ²
결과변인(outcome variable): 진로관여행동(Y)							
부모진로지지(X)	.72	.64	.05	14.64**	214.42	.41	
결과변인(outcome variable): 전공만족도(M ₁)							
부모진로지지(X)	.54	.52	.05	10.86**	117.84	.28	
결과변인(outcome variable): 진로적응성(M ₂)							
부모진로지지(X)	.38	.40	.05	7.50**	90.83	.37	
전공만족도(M ₁)	.27	.30	.04	5.57**			
결과변인(outcome variable): 진로관여행동(Y)							
부모진로지지(X)	.29	.26	.05	5.95**	184.76	.64	
전공만족도(M ₁)	.43	.40	.05	9.56**			
진로적응성(M ₂)	.35	.30	.05	7.08**			

주. X: 독립변인, Y: 종속변인, M₁: 매개변인 1, M₂: 매개변인 2.

** $p < .01$.

표 4. 매개효과 분석결과

경로모델	간접효과	표준오차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부모진로지지→전공만족도→진로관여행동	.21	.04	.14	.28
부모진로지지→진로적응성→진로관여행동	.12	.03	.07	.18
부모진로지지→전공만족도→진로적응성→진로관여행동	.05	.02	.02	.09
전체	.38	.04	.30	.46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부모진로지지,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과 진로관여행동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하고,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의 각각의 매개효과와 이중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관여행동은 부모진로지지와 전공만족도 및 진로적응성과 높은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이 결과는 부모변인이 진로 관련 변인들과 관련성 있다는 선행 연구(김혜경, 2021; 소연희, 2023; 유계숙, 기나휘, 양다연, 2018; 최인재, 2006)의 결과들과 유사하였고,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이 각각 진로행동 변인들과 정적인 관련성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박현미, 유나현, 2020; 송윤정, 조규판, 2015)도 지지하였다. 이는 진로관여행동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부모진로지지,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을 고려해야 함을 함의한다. 즉 진로관여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는 진로와 관련하여 정서적 지지, 경제적 지원, 충분한 대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녀를 지원해 주고, 대학에서는 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고 진로적응성을 함양하도록 전공과 연계한 진로특강이나 전공진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서는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이 각각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를 통해 대학생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부모의 진로에 대한 대화적, 경제적 등의 지지가 반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공만족도가 진로관여행동을 예측하는 주

요 변수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들은 부모의 진로지지가 전공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김혜경, 2021; Barns et al., 2020), 전공만족도가 진로관련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선행 연구 결과(송윤정, 조규판, 2015)들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진로지지는 대학생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미래의 진로를 모색하고,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책임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진로적응성을 촉진하였고, 이와 더불어 진로적응성을 통해 진로관여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부모관련 변인은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김미정, 노규민과 김정민의 연구(2022)결과와 진로적응성은 진로관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유기은, 이기학, 2015; 장우정, 2023; Savickas, 1997)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 간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 또는 진로적응성이 매개효과가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부모지지가 자녀의 진로행동에 미치는 직접인 영향력이 높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였다(김종운, 김현희, 2014; 신종임, 현재송, 2008).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선행 연구들에서는 성인 초기 이전의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모지지가 더 큰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 결과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모진로지지는 진로관여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의 이중 매개를 통해 진로관여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모형이 적절한 모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한 선행 연구는 아니지만, 부모 변인이 진로행동 관련 변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전공 관련 변인과 진로성숙도, 진로신념 등과 같은 정의적 진로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선행 연구(김혜경, 2021; 전미리, 2020; 정철영, 이영광, 2020; 한동현, 서영정, 조영아, 2019) 결과들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대학생들은 진로탐색, 결정 및 계획 및 준비하는 통합 활동인 진로관여활동에서 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지만, 전공의 만족도와 진로관련 상황이나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처능력인 진로적응성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본 연구 결과 진로준비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통제, 관심, 호기심, 자신감을 기반으로 문제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인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진로관여행동을 하는 데 있어 설정한 진로목표 도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포기보다는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이며, 책임감을 기반으로 자기통제를 통해 미래계획을 적극적으로 수정하고 자신감과 호기심을 바탕으로 진로영역을 확장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교사가 되겠다는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진로관여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교사 임용 시험의 합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포기 대신 교육 관련 직업이나 활동을 다시 탐색하여 자신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대처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관여행동 증진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를 위한 교육적 시사점과 의의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결과, 부모의 진로지지, 전공만족도, 진로적응성이 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인들이었다. 이는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특성과 잠재성을 고려하여 진로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관심 분야도 탐색하며, 진로에 대한 책임감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진로를 준비하는 진로관여행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

모가 자녀가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해주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체계적인 진로 관련 부모교육이나 상담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의 각 학과(부)에서는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하여 어떤 진로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공 진로에 대해 학생들이 흥미를 높이도록 특강이나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도 진로관여행동 증진을 위한 방법이다. 이와 더불어 전공관련 진로에 대한 도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모전이나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 것도 진로관여행동 강화를 위해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 부모진로지지와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의 이중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진로관여행동의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들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진로관여행동 강화를 위한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공교과목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전공에 따른 진로를 탐색하고 실제로 전공 경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재학생들이 전공 관련 진로를 체계적으로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그 예이다. 이와 더불어 진로적응성 함양을 위해서 진로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예측해 보고, 자신의 관심 분야와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자기이해와 특성 분석을 하도록 진로특성 검사와 활용 방법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다.

셋째, 이제까지 진로관련 변인들에 대한 부모지지는 주로 아동 및 청소년들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였던 선행 연구 결과들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성인기의 대학생들도 부모진로지지의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 및 진로관여행동에도 부모진로지지가 직·간접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는 이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 연구 방안에 대해서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진로관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초점

을 두었기 때문에, 전공과 학년 등 학습자 특성에 따라 본 연구 결과를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에서는 전공, 학년, 지역 특성별로 진로관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관여행동에 미칠 수 있는 외생변인으로 부모진로지지, 내생변인으로 전공만족도와 진로적응성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심리적, 동기적, 인지적 변인들을 설정하고, 변인들 간의 구체적인 경로를 탐색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셋째, 진로관여행동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단일 가설 모형 검증 외에 다양한 경쟁모형들을 설정하여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어떤 지지유형이 대학생의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은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모진로지지의 하위요인들을 구분하여 각 요인별로 전공 및 진로 관련변인들과 진로관여행동의 경로를 탐색하는 연구가 시행될 필요도 있다.

참고문헌

강애령, 김현민, 조성균 (2020). 태권도전공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진로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및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80), 285-296.
<https://doi.org/10.51979/KSSLS.2020.04.80.285>
 경향신문 (2023. 4. 30). 성인도 진로교육 받는다 교육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발표.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4301135001#c2b>에서 2023년 4월 30일 인출
 김경애, 임종현, 류방란, 안해정, 권희경, 전보미 (2018).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Ⅲ).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김나래, 김지근 (2022). 대학 졸업예정자의 희망, 진로적응성, 진로구성행동, 진로만족 간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4), 903-917.
<https://doi.org/10.22251/jlcci.2022.22.24.903>
 김미정, 노규미, 김정민 (2022). 부모의 자율성지지와 예비보육교사의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에서 자기주도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3(4), 415-424.

<https://doi.org/10.5723/kjcs.2022.43.4.415>
 김민선, 고은영 (2020). 한국판 진로적응성 단축형척도 (K-CAAS-SF) 타당화. *교원교육*, 36(4), 261-281.
<https://doi.org/10.14333/KJTE.2020.36.4.261>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김수영, 배성아 (2014). 대학생의 진로적응성과 진로미결정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2), 429-448.
 김종운, 김현희 (2014). 일반청소년과 교정시설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0), 515-538.
 김하라, 이항심 (2019). 여대생의 부모진로지지, 진로장벽, 자아존중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포부간의 구조적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6), 1121-1142.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6.1121>
 김혜경 (2021).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38(3), 708-719.
<https://doi.org/10.12925/jkocs.2021.38.3.708>
 박현미, 유나현 (2020). 대학생의 정서·성격 관련 진로결정 어려움과 진로관여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진로적응모형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3(2), 89-110.
<https://doi.org/10.32341/JCER.2020.6.33.2.89>
 방희원, 조규판 (2020).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진로동기 및 진로성숙도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6(4), 285-304.
<https://doi.org/10.24159/joec.2020.26.4.285>
 서인희, 임정선 (2019).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발달지원연구*, 8(3), 111-127.
<https://doi.org/10.22839/adp.2019.8.3.111>
 소연희 (202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진로탄력성과 진로포부의 매개효과. *인간발달연구*, 30(2), 65-78.
<https://doi.org/10.15284/kjhd.2023.30.2.65>
 송윤정, 조규판 (2015).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학습몰입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355-374.
 신종임, 현재송 (2008). 부모지지, 희망 및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동서정신과학*, 11(2), 45-59.
 유계숙, 기나휘, 양다연 (2018).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헬리콥터 부모 역할과 주관적 안녕감. *생애학회지*, 8(2), 89-107.
<https://doi.org/10.30528/jolss.2018.8.2.005>
 유기은, 이기학 (2015). 대학생의 낙관성과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과 통제력 착각의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28(2), 65-86.
 윤철호, 최광돈 (2016). 구조방정식모형에서의 R을 이용한

- 부트스트랩 기반의 이중매개효과 분석 방안에 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4(9), 111-121.
<https://doi.org/10.14400/JDC.2016.14.9.111>
- 이보영, 백지숙 (201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7(4), 57-67.
- 이상희 (2009). 대학생의 부모 진로지지 척도 개발 연구. *상담학연구*, 10(3), 1539-1553.
<http://doi.org/10.15703/kjc.10.3.200909.1539>
- 이영광, 양인준, 이승엽 (2019).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변인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1(4), 101-126.
<https://doi.org/10.23840/agehrd.2019.51.4.101>
- 이자형 (2021). 바리스타전공 전문대 학생들의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적 지지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연구*, 7(2), 103-126.
- 임점섭, 김장희 (2019). 대학생 부모의 진로지지와 대학생할 적응 간의 관계에서 진로탄력성의 매개효과. *교류분석상담연구*, 9(1), 131-147.
<https://doi.org/10.35476/taca.2019.9.1.131>
- 장우정 (2023). 대학생의 성장마인드셋과 진로관여행동의 관계에서 진로적응성의 매개효과 검증. *산업융합연구* (구 대한산업경영학회지), 21(3), 49-56.
<https://doi.org/10.22678/JIC.2023.21.3.049>
- 전미리 (2020). 부모진로지지와 대학생의 성격요인이 진로선택몰입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효능감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9(4), 1-24.
<https://doi.org/10.37210/JVER.2020.39.4.1>
- 정미나 (2011). 진로의사결정유형과 진로관여도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철영, 이영광 (2020). 부모 진로지지 관련 변인과 청소년 진로선택 및 발달 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진로교육연구*, 33(4), 125-151.
<https://doi.org/10.32341/JCER.2020.12.33.4.125>
- 조선일보 (2020. 10. 19). 대학생 절반 진로결정 못해. https://www.chosun.com/economy_general/2020/10/19/VTIK2X2WVFDSJF26H2SDN3DEHA/에서 2020년 10월 19일 인출
- 조혜리, 박진우, 홍아정 (2022). 대학생의 미래지향시간관이 진로관여행동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열린교육연구*, 30(6), 203-231.
<https://doi.org/10.18230/tjye.2022.30.6.203>
- 최인재 (2006). 한국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문화심리학적 고찰. *상담학연구*, 7(3), 761-773.
- 하혜숙 (1999). 대학생의 학과(학부) 만족과 학교만족에 관한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경제 (2024. 3. 13). 한국일자리 13%가 AI가 대체 폭탄전망. 가장 위험한 직업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37746i>에서 2024년 3월 13일 인출
- 한동현, 서영정, 조영아 (2019). 부모의 자율성지지가 대학생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강점 활용과 진로목표불일치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4), 19-43.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24.19>
- Barnes, S. A., Bimrose, J., Brown, A., Gough, J., & Wright, S. (2020). *The role of parents and careers in providing careers guidance and how they can be better supported*. UK: University of Warwick.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https://doi.org/10.1037//0022-3514.51.6.1173>
- Chan, K. Y., Uy, M. A., Moon-ho, R. H., Sam, Y. L., Chernyshenko, O. S., & Yu, K. Y. T. (2015). Comparing two career adaptability measures for career construction theory: Relations with boundaryless mindset and protean career attitud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87, 22-31.
<https://doi.org/10.1016/j.jvb.2014.11.006>
- Cox, D. W. (2008). *The operationalization of occupational engagement and validation of the occupational engagement scale for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Lawrence: University of Kansas.
- Cox, D. W., Krieschok, T. S., Bjornsen, A. L., & Zumbo, B. D. (2015). Occupation engagement scale-student: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3(1), 107-16.
<https://doi.org/10.1177/10690727145230>
-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 Lang, A.-G. (2009).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4), 1149-1160.
<https://doi.org/10.3758/BRM.41.4.1149>
- Grimm, L. G., & Yarnold, P. R. (2000). Introduction to multivariate statistics. In L. G. Grimm, & P. R. Yarnold (Eds.), *Reading and understanding more multivariate statistics* (pp. 3-2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ayes, A. F. (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Guilford Press.
- Hayes, A. F., & Preacher, K. J. (2014).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with a multicategorical independent variable. *British Journal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Psychology*, 67(3), 451-470.

- <https://doi.org/10.1111/bmsp.12028>
- Kline, R. B. (2016).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Krieshok, T. S., Black, M. D., & McKay, R. A. (2009). Career decision making: The limits of rationality and the abundance of non-conscious process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5(3), 275-290.
<https://doi.org/10.1016/j.jvb.2009.04.006>
- Lent, R. W., Ezeofor, I., Morrison, M. A., Penn, L., & Ireland, G. W. (2016). Applying the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o career exploration and decision-making.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3, 47-57.
<https://doi.org/10.1016/j.jvb.2015.12.007>
- MMaggiori, C., Rossier, J., & Savickas, M. L. (2017). Career adapt-abilities scale-short form (CAAS-SF) construction and validat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5(2), 312-325.
<https://doi.org/10.1177/106907271456585>
- O'Brien, K. M., & Fassinger, R. E. (1993). A causal model of the career orientation and career choice of adolescent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0(4), 456-469.
<https://doi.org/10.1037/0022-0167.40.4.456>
- Savickas, M. L. (1997). Career adaptability: An integrative construct for life-span, life space theory.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5(3), 247-259.
<https://doi.org/10.1002/j.2161-0045.1997.tb00469.x>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S.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pp. 282-298). San Francisco Oxford: Jossey-Bass.